6강 소동파를 떠올리며

(1) 後赤壁賦 _ 蘇軾
후 적 벽 부 소 식

● 소개

: 부는 일종의 형식이다. 산문 같은 운문의 형식인데 원래는 진술, 나열하는 글을 일컫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의 부는 운문적인 형태를 취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며 묘사가 많다.

적벽부의 적벽은 삼국지의 적벽대전의 적벽과 딱 맞지는 않다. 전적벽부, 후적벽부가 있는데 전편은 낭만적이고 감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후편은 전에 비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後赤壁賦 _ 蘇軾
후 적 벽 부 소 식

是歲十月之[1]望 步[2]自雪堂: 올 해 10월의 보름날에 설당으로부터 걷기를 시작했다.
시 세 십 월 지 망 보 자 설 당

將歸于臨皐 二客從予 過黃泥之坂: 임고로 되돌아오는 길에 두 객이 나를 따르고, 누런 뻘의 언덕을 지나갔다.
장 귀 우 임 고 이 객 종 여 과 황 니 지 판

---

1) 望: 望은 물끄러미 보다, 가물가물한 것을 본다는 의미가 있다. 밤중에 저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때는 보름이다. 소식이 적벽부를 지었을 때는 금과 같이 밤에도 앞이 훤히 보이던 때 지금과 같이 밤이 밝은 때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다.
망 망

● 관련 표현

① 望 五十: 오십이 멀리 바라보일 때, 41세
망 오 십

② 既望: 막 보름이 지난 달
기 망

③ 幾望: 14일 즈음의 달
기 망

2) 自: ~부터 ~까지
자

霜露既降 木葉盡脫: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렸고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다₩
상 로 기 강 목 엽 진 탈

人影在地 仰見明月: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있어 고개를 들어 밝은 달을 보았다[3]
인 영 재 지 앙 견 명 월

[4]顧而樂之 行歌相答 已而歎曰: 둘러보며 즐기고 노래를 부르고 답가를 받고 뒤이어 탄식이 나오더라
고 이 락 지 행 가 상 답 이 이 탄 왈

有客無酒 有酒無肴: 객은 있는데 술은 없고, 술은 있는데 안주는 없구나[5]
유 객 무 주 유 주 무 효

月白風淸 如此良夜何: 달은 하얗고 바람은 깨끗하고 이와 같이 좋은 밤에 어찌 할 것인가
월 백 풍 청 여 차 량 야 하

客曰 今者[6]薄暮 擧網得魚: 객이 말하길 지금 초저녁이 되는데, 어망을 들어 물고기를 잡았다.
객 왈 금 자 박 모 거 망 득 어

[7]巨口細鱗 狀如松江之[8]鱸: 입이 크고 자잘한 비닐이 마치 송강의 농어 같다.
거 구 세 린 상 여 송 강 지 로

顧[9]安所得酒乎: 어느 곳을 둘러보아야 술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고 안 소 득 주 호

---

3) 당장 앞만 보고 걷다가 자연스레 고개를 올려 하늘을 보게 된 상황
4) 顧(고): 둘러보다,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다. 이후에도 쓰이는데, 같은 글자는 중요한 뜻일 때는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대게의 경우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 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5) 어떻게 보면 이처럼 결핍된 상태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지도 모른다. 결핍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대를 요구하게 된다.
6) 薄暮(박모): 초저녁
7) 巨(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의 크기의 큼을 말하고, 大(대)는 육안으로도 큼을 말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추상적으로도 클 때를 이야기한다.
8) 鱸(로)는 농어를 의미하는데, 고기 魚(어)자의 음가를 빌려 ㅇ을 달고 나오는 자다. 다른 예로는 鯉魚(리어)가 있다.
9) 安(안)은 여기서 何(하)의 의미로 사용된다. 何(하)에는 어디, 어떤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곳, 영어로는 where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歸而謀[10]諸婦 :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인과 상의했다.
귀 이 모 저 부

婦曰 我有斗酒 藏之久矣: 부인이 말하길, 나에게 말술이 있는데 그것을 보관해 둔지 오래 되었다.
부 왈 아 유 두 주 장 지 구 의

以待子不時之需: 불시에 필요함이 생길 때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이 대 자 불 시 지 수

於是携酒與魚 復遊於赤壁之下: 이때에 술과 물고기를 가지고서 적벽의 아래로 놀러갔다.
어 시 휴 주 여 어 부 유 어 적 벽 지 하

江流有聲 斷岸[11]千尺: 강의 흐름에 소리가 있고 (칼로 자른 듯한) 가파른 절벽이 천척이다.
강 류 유 성 단 안 천 척

山高月小 水落石出: 산은 높아지고 달은 작아지고 물은 떨어지고 돌은 드러나니
산 고 월 소 수 락 석 출

曾日月之幾何 而江山不可復識矣: 해와 달이 얼마나 되었길래 강산을 다시 알아볼 수 없는가
증 일 월 지 기 하 이 강 산 불 가 부 식 의

予乃攝衣而上: 내가 이에 옷을 걷어붙이고 올라가
여 내 섭 의 이 상

履巉巖披蒙茸: 험한 바위를 밟고 풀이 우거진 모습을 가르고
리 참 암 피 몽 용

踞虎豹登虬龍: [12]호랑이와 표범에 걸터앉고, 규룡의 등에 올라탔다.
거 호 표 등 규 룡

攀棲鶻之危巢: 위태로운 곳에 자리한 송골매의 둥지로 올라가
반 서 골 지 위 소

俯[13]馮夷之幽宮: 풍이가 사는 궁을 내려다봤다.
부 풍 이 지 유 궁

---

10) 諸: 之於의 준말로 사용되었다.
저

11) 千尺: 千, 百, 十 과 같이 등장하는 수는 많다의 관용적 표현이지 정확한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 척 지 백 십

12) 기암에 걸터앉고, 올라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치 백 치

13) 馮夷: 장자에 자주 등장하는 물의 신으로 대게 강을 의미한다. 소식이 장자를 좋아함이 나타나는
풍 이

蓋二客[14]之不能從焉: 두 객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였다.
개 이 객 지 불 능 종 언

劃然長嘯: 휘파람 소리가 이곳을 가르고
획 연 장 소

草木震動 山鳴谷應 風起水涌: 초목이 진동하고 산이 명하여 계곡이 응해주니 바람이 일고 물이 튀어 올랐다.
초 목 진 동 산 명 곡 응 풍 기 수 용

予亦悄然而悲 肅[15]然而恐: 갑자기 초연하고 슬퍼지고 숙연하고 두려워졌다.
여 역 초 연 이 비 숙 연 이 공

凜乎其不可留也: 대자연의 위상이 아찔해 보여 그곳에 있을 수 없다.
름 호 기 불 가 류 야

反而登舟 [16]放乎中流: 배로 돌아와 배에 올라 중류로 나아가서
반 이 등 주 방 호 중 류

[17]聽其所止而休焉: 배가 머무른 곳에 배를 두고 거기서 쉬었다.
청 기 소 지 이 휴 언

時夜將半 四顧寂寥: 때는 [18]밤의 반이 되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적요하다.
시 야 장 반 사 고 적 요

適有孤鶴 橫江東來: 때 마침 한 마리 학이 강의 동쪽에서 왔다.
적 유 고 학 횡 강 동 래

翅如車輪 玄裳縞衣: 날개가 마치 수레바퀴 같아 보이고 검정 아랫도리와 비단으로 짠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시 여 거 륜 현 상 호 의

戛然長鳴 掠予舟而西也: 학소리가 길게 울려 이 배를 스치고 서쪽으로 갔다.
알 연 장 명 략 여 주 이 서 야

대목이다.

14) 之(지) 큰 의미는 없다. 之(지)를 빼도 되지만 굳이 넣어서 평서문을 피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15) 然(연): 그러나, 그러하다 이 의미로 앞글자와 연용하여 의성어적이거나 의태적인 느낌을 낸다.

16) 放(방): 놓다, 나아가다의 의미로 고문에서 많이 사용된다.

17) 聽(청): 듣다, 받아들이다.

18) 대략 12시 때쯤을 말한다.

須臾客去 予亦就睡: 잠시 후에 두 객은 가고 나 또한 잠자리에 들었다.
수 유 객 거 여 역 취 수

夢一道士: 꿈에 한 도사가
몽 일 도 사

羽衣翩躚 過臨皐之下: 날개옷을 펄럭이며 임고의 밑을 지나
우 의 편 선 과 임 고 지 하

19)揖予而言曰: 나에게 인사하며 말하기를
읍 여 이 언 왈

赤壁之遊樂乎: 절벽에서의 노님은 즐거웠는가?
적 벽 지 유 락 호

問其姓名 俛而不答: 그 성명을 묻자 고개를 내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문 기 성 명 면 이 부 답

嗚呼噫嘻 (감탄 중)
오 호 희 희

我知之矣: 나는 알았다.
아 지 지 의

疇昔之夜 飛鳴而過我者: 지난 밤에 날며, 울며 나를 지나가던 것이
주 석 지 야 비 명 이 과 아 자

非子也耶: 당신이 아닌가
비 자 야 야

道士20)顧笑 予亦驚悟: 도사는 단지/둘러보며 웃고 나 또한 잠에서 깨어
도 사 고 소 여 역 경 오

開戶視之 不見其處: 문을 열어 그것을 보았는데 그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개 호 시 지 불 견 기 처

---

19) 揖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공손하게 굽혔다가 펴면서 손을 내린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굉장히 정중한 인사를 말한다.
읍

20) 顧: 단지, 둘러보며의 뜻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두 뜻 다 통하여 같이 표기하였다.
고